

머리말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2005년 6월 20일의 한일 양국 정상회담에 의하여 설립하기로 합의되고, 그 후 일련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7년 6월 23일에 발족되었다. 제2기 위원회 중에서 제1분과는 한일 양국에 있어서의 고대 한일관계사의 학설과 해석의 현상과 문제점을 공동으로 조사·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제1분과는 한일 쌍방 3명씩 합계 6인의 연구위원으로 구성되어, 제1기에는 연구기간의 문제로 검토하지 못했던 시대를 주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그 결과, 고고학이 대상으로 하는 시대부터 고대 말인 9세기 말까지의 한일관계사를 길게 고찰하게 되었다. ‘고대 한일관계의 형성과 변천’이라는 大主題를 설정하고, 이를 (1) 3세기 이전, (2) 4~6세기, (3) 7~9세기로 나누어 공동연구를 하기로 했다.

약 2년 반 동안 먼저 연구 과제와 분과 운영방침을 정한 후, 총 17회의 합동분과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가운데 한일 각 위원들은 대체로 예정대로 각 과제를 검토하였고, 그 성과를 상호 간에 보고하고, 토의를 진행해 왔다.

연구기간 종료를 앞둔 2009년 8월에는 각 위원들이 각 주제와 관련된 부분의 문제 제기를 하여 좌담회를 열었다. 그 밖에 합동분과회의 개최지에서는 연구 주제와 깊이 관련된 사적, 유적, 고고·문헌자료에 대해서 현지 연구자들의 협력을 얻어 공동조사와 의견 교환을 하였다. 이러한 공동연구와 조사를 통한 적극적인 의견교환으로 한일의 학설의 現狀과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과 이해를 상호 간에 심화시킬 수 있었다.

이 보고서는 이렇게 추진된 2년 반의 공동연구의 성과로서 각 위원 개인의 조사·연구 성과로서의 논문과 좌담회 토론문, 그리고 활동기록을 정리하였다. 고대 한일관계사의 학설은 문헌·고고 연구자들이 매일매일 연구에 정진하여 점진적이기는 하나 진보하고 있고, 이 연구보고는 양국에 있어서의 연구의 현 단계를 정리한 것이다. 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학술 각 분야에서 학술 교류가 왕성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역사 분야의 연구는 국가와 민족의식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 보고서가 고대의 한일교류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 분들에게 활용됨으로써 한일 양국에 있어서의 교류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더욱 진전되고, 역사인식의 상호

2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1권

이해가 심화되게 된다면 다행이겠다.

끝으로 이 2년 반 동안 공동연구회의 개최와 유적·자료 조사에 협력해 주신 양국의 여러 기관과 그 밖의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또, 사무국으로서 제1분과의 지금까지의 운영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한국측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사무국, 그리고 일본측 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09년 11월 28일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국측 위원 일본측 위원

盧泰敦 濱田耕策

金泰植 坂上康俊

趙法鍾 森 公章